

experience
Life As Mission

143rd, Spring, 2022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 터 서 브 프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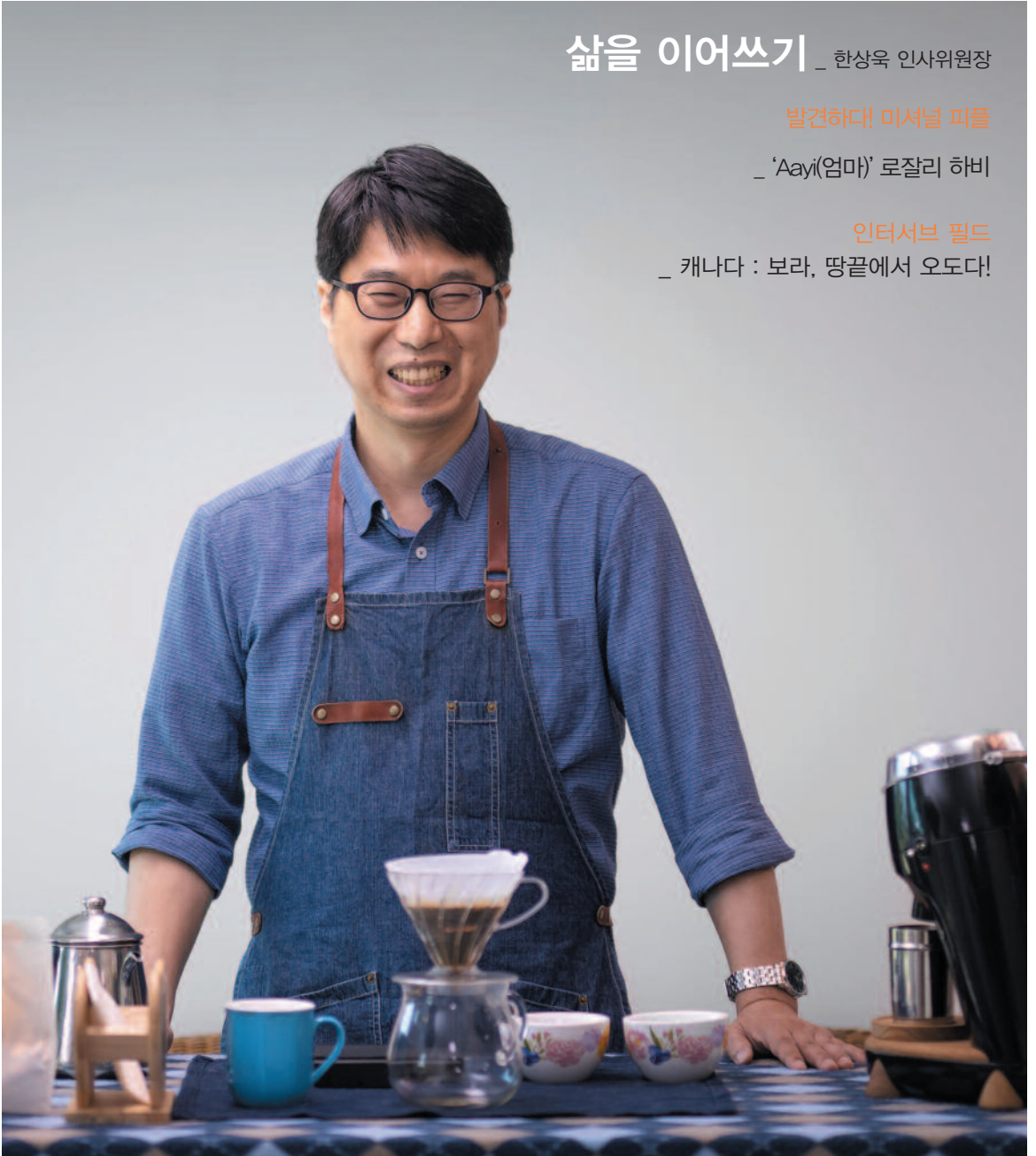
삶을 이어쓰기 _ 한상욱 인사위원장

발견하다! 미셔널 피플

_ 'Aayi(엄마)' 로잘리 하비

인터서브 필드

_ 캐나다 : 보라, 땅끝에서 오도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탄소 금식’ 어떠신가요?

탄소 금식은 우리 안에 탐욕을 비우고 기후위기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순절 40일 동안만이라도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 탄소금식 실천은 아래 단체들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샬림: <https://blog.daum.net/ecochrist/1052>
2. 기독교환경운동연대: <http://greenchrist2.iwinv.net/>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삶을 이어쓰기 _ 한상욱 인사위원장
- 08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가? _ 송기태 부대표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1 발견하다! 미셔널 피플 : 로잘린 하비 _ 공갈렙 선교사
- 16 미셔널 패밀리 _ 김정화, 송명진 선교사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9 보라, 땅끝에서 오도다! _ 김무용 선교사
- 24 미셔널 북 _ 예수로 성경읽기

*Creation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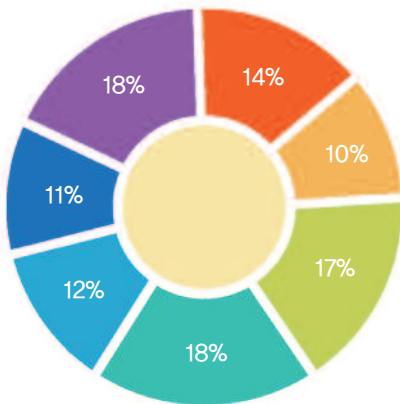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인터서브 이슈

삶을 이어쓰기

한상욱 인사위원장

최근 5년 신입 선교사 사역 영역



- 교사 14%
- 의료 10%
- 비즈니스 17%
- 교회/신학교 18%
- 난민사역 12%
- 한국어/문화 11%
- 주부 18%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인터서브 신입 선교사의 사역 영역에 대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기존의 자기 삶과 직업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터서브가 추구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이라는 선교 사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의 결과입니다.

인터서브에서 만든 선교사들의 학습과 개발에 대한 영역은 다음의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제자 되기 Being a Disciple

공동체 안에서 섬기기 Serving in Community

다문화적 통찰 Intercultural Intelligence

총체적 섬김 Wholistic Service

다문화적 제자 삼기 Intercultural Disciple Making

이 중 4번째 총체적 섬김은 선교사가 자신이 삶과 직업을 통해 경험하고 축적한 역량과 영향력을 가지고 섬김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총체적 섬김이란, 첫째로 자국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자기 일과 역량이 곧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에서 문화와 관계 가운데 직업을 잘 수행하도록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과 생산성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현지 문화의 통상적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배우고 적응해 갈 수 있는지 돕는 것입니다.


선교는 막연하거나,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을 포기, 중단하고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음악, 예술, 언어, 목회, 환경 운동, 행정, 교육, 의료, 다문화, 복지, IT 등 내가 해 왔고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서브가 찾고 있는 선교사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서브가 생각하는 **선교란, 삶을 이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통해 열방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

는 것입니다. 삶을 잘 이어쓰기 위해서는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선교학적 성찰(Missiological reflection)을 요구합니다. Missio Dei,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봅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는, 인간의 문화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는 일이었고, 그 문화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의 핵심 역량은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문화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 문화적 상황 가운데 복음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가치 둔 이 마음과 이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지며 다른 사람들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전문적 능력이 부족해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으론 선교사가 아닌 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능력이나, 의학지식이나, 연구업적, 목회적 능력 등 기타 전문지식으로 선교사들을 비하하는 모습도 더러 만납니다. **선교사의 핵심역량은 인생 전체**입니다. 가시적 열매가 없고, 대단치 않고, 무능해 보일지 몰라도, 타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통째로 드린 시간. 그걸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선교사로서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귀하게 여기고 자라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복음과 교회를 이해하는 일, 우리의 삶과 직업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인터서브가 추구하는 Life As Mission이란 내가 공부하고 일하며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선교지에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살며 일하며,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경험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터서브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이어 쓰기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을 이어쓰다

“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A선교사는, **네팔**에서 미래 바리스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심리 상담사였던 B선교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C선교사는, **캄보디아**의 전통 직조물을 이용해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홈패션 가게를 운영했던 D선교사는, **인도**에서 미싱 스쿨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인터서브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삶을 이어쓰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opmanager.isk@gmail.com / 인터서브 인사부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가?

송기태 부대표

야구, 나의 일그러진 열심

학창 시절, 매우 열중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야구를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동네 야구 선수 치고는 제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동전을 넣고 배팅 하는데 가게 주인이 어느 학교 선수냐고 물었습니다. 선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야구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대표 현역 선수가 우리 팀을 코칭한 적이 있었는데, 그도 나에게 언제 선수 생활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야구와 함께 열중한 다른 한 가지 주제는 인생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심하게 방황하면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것도 야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경기 지역 대학 서클 야구 선수권 대회가 매 학기 마다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보통 25개 정도의 팀이 참가했는데, 학기 초에 시즌이 시작되면 학기

말에 끝을 맺었습니다. 잘해서 결승 토너먼트까지 진출하면 그 때가 바로 학기말 시험 직전이었습니다.

4학년, 방학의 끝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왜 그토록 야구에 열중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3루수와 유격수였던 저는 연습 때는 별로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시합에서는 곧잘 실수하곤 했습니다. 나의 실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심은 욕심에 시합 때가 되면 더 긴장하게 되고, 긴장이 더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야구는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부질없는 노력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오랜 방황 끝에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매우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I am what I am) (출 3:14).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신을 근거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존재해왔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로도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식물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자신을 온전히 소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 혹은 일부를 말해주지만, 자신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존재는 어떤 행위나 사람과의 관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는가?

오랜 인생 탐구 끝에 발견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나는 의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는 오랫동안 방황하며 찾았던 나를 발견하게 되

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대로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열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나를 일 증독에 빠지게 했고, 결국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탈진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매일의 일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동일한 형태의 탈진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류를 위해 이루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인류와 함께 이루시는 일들에 있음을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은혜로 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그리스도인,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우리가 날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도 사도 바울이 일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의 탁월함과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 목적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식도 일의 탁월함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가정과 직장, 이웃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과 또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 주변의 동료들과 이웃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卍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 4:5).

Missional People

발견하다! 미셔널 피플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며...

올해로 인터서브 공동체가 170주년을 맞이합니다. 1852년 3월 1일 캘커타 교원양성학교^{The Calcutta Normal School}가 개교한 이래 수많은 인터서브 사역자들이 인도아대륙과 그 주변 국가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옥같이 빛나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인터서브 프렌즈를 통해 소중한 인터서브 역사 속 인물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혹은 150년 전으로 여행하면서 역사 속 인물들이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의력과 용기를 겸비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지, 교파와 성별, 인종을 초월한 협력 사역을 해 왔는지, 또한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갈렙 선교사

‘Aayi(엄마)’ 로잘리 하비

* Aayi : 엄마, 인도 중서부 지역에서 쓰이는 마라티어



ROSE HARVEY.

1882년 제나나성경의료선교회(ZBMM, 인터서브의 옛 이름) 역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한 선교사가 인도로 파송됩니다. 그 이름은 로잘리 하비(Rosalie Harvey). 그녀는 1854년 영국 서식스 씨포드의 작은 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882년 인도로 파송되어 첫 2년을 푸네에서 보낸 후, 나시크에서 평생을 한센인의 친구로, 고아들의 어머니로, 동물보호론자로 살다가 1932년, 50년간의 인도 생활을 마감하고 소천하였습니다.

필요에 반응하다

- 남녀공학 학교와 동물병원

1884년 나시크로 이동한 로잘리는 바로 남녀공학 학교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ZBMM 선교사들은 여성 사역에 집중하였기에 로잘리의 남녀공학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현지의 필요를 보고 이에 응답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그녀는 여자아이들뿐 아니라 남자아이들의 교육도 절실한 이 지역의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와 동료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학교를 세워 운영하였습니다.

하루는 로잘리가 나시크의 길거리를 지나는데 한 여성이 다리가 셋인 암소를 심하게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는 암소가 얼마 못되어 죽겠다는 생각에 매질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날 장애가 있는 동물의 고통을 보게 된 로잘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어떤 생명체라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던 미션 홈에서 임시로 동물치료 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1895년, 그녀는 수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하게 됩니다.

창조 세계 돌봄이 21세기의 시각으로는 공감 가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만 한정되었던 시대에 로잘리의 행동은 매우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물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 구호사업과 고아원

189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인도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로잘리가 사역하는 서부 인도가 가장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사^{餓死}하거나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정부에서도 구호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마다 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호위원으로 이 활동을 주도하던 로잘리에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센터에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거나 직접 아이를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위한 조직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로잘리를 통해 그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지방 정부에서는 그녀의 구호 활동을 치하하며 명예 실버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차가운 메달보다 오히려 불독 강아지를 선물로 주었으면 더 좋겠다

고 일기장에 쓸 정도로 명예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도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고 남자로 여깁니다”라는 인도 남성들의 말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당시 미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했던 인도 사회에서 이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담고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 한센인 사역

나시크 힌두 사원 근처에 모여 살던 한센인들은 자주 로잘리의 미션 홈에 방문하여 구걸하고 때론 미션 홈 부지에서 기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시적 구호가 아니라 조직적인 돌봄이라는 것을 깨달은 로잘리는 1898년, 한센인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호사업을 하다가 또 하나의 사역의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인도가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였고, 로잘리 또한 지방 정부의 요청으로 구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한센인들의 필요를 더 크고 강하게 느낀 그녀는 이들을 위한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을 거치며 1903년엔 100명 이상으로 불어난 한센인들을 위해 로잘리는 병원과 학교, 집 등을 갖춘 홈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재정이 필요했지만 안타깝게도 ZBMM 영국 본부에는 이 사업을 후원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재정모금 운동을 벌였지만, 재정은 매우 느린 속도로 채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힌두인들은 기독교 선교사가 한센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고, 기독교인들은 극소수의 한센인만 회심했다는 것으로 선교사의 활동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잘리는 본인의 사역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의 일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의 고통을 치료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해줌으로 미래의 고통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들의 귀를 여시고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50년 사역의 유산

- 'Aayi'(엄마)

로잘리는 50년 동안 인도 사역을 통해 사람을 얻었습니다. 로잘리의 가장 큰 유산은 그녀를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도인들로부터 'Aayi(엄마)'로 불렸습니다.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그녀의 삶은 그들에겐 엄마로서, 친구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로잘리는 한센인 흠이 완공된 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치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치를 뛰어넘지 않는 선에서”. 그녀의 고백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역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는 영적인 눈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게 도전합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50년의 인도 사역 중 단 한번 11개월의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영국 본부에서 해마다 로잘리에게 안식년을 가질 것을 종용했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본국에 방문하여 후원자들과 교회들을 방문하여 마치 영웅처럼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것이나 청중들로부터 받게 될 칭송 등이 너무나 거북했던 것입니다. 선교사의 책무 측면에서 그녀의 행동은 현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웅주의 시대에 비 영웅이 되고자 했던 겸손하고 현지화된 그녀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충분히 귀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상황과 필요에 잘 맞추며 살았습니다. 남녀공학 학교를 세우고, 아무도 관심 없던 동물의 아픔에 응답하는가 하면, 철저히 소외되었던 한센인의 섬겼으며 기근으로 버려진 고아들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필요를 보았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잘리 하비의 삶이 위기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선교적 울림을 주고 있나요? **卍**



미션얼 Family

신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기나긴 코로나 기간에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1년 마지막 달,
인터서브 공동체에 신입 선교사님들이 허입되었습니다.
어떤 마음과 소명을 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신입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신입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재정으로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은
재정부 : 031-778-7933 / finance3isk@gmail.com 혹은
인터서브 홈페이지 후원란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김정화 선교사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2021년 12월에 인터서브 파트너로 허입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로는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경외가 있는 것 같아요!

Q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는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25년동안 패션업계에서 종사했어요. 제 인생을 책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어린 시절을 다룬 1장, 직장인으로서의 2장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3장은 선교지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또 주님이 그렇게 다듬어 오신 것 같아요. 주인공은 그대로인데 배경 화면만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의 계획은 30년을 채우고 3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의 때는 아니었더라고요.

Q. 인터서브에 합류하신 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모든 일정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서 아쉬웠지만, 캔디데이트 스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선배님들이 귀한 시간들을 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기억에 남을 만큼 환영받는 시간들이었어요. 또 회사 생활동안 매번 특채로 채용되어 동기애를 못누려봤는데, 이번에는 모두 저 포함 3유닛뿐이지만, 이순중/김하리선생님과 송명진선생님과 함께하여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Q. 앞으로 계획들을 이야기해주세요.

단기 계획으로는, 지금은 GMTC 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북녘 내지 사역을 준비하시는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나누는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하게 될지, 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나가고 싶어요!

Q. 정화 선생님께,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선교적 삶이란 예배자의 삶이에요. 직장 생활 동안, 때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조롱받기도 하고, 때론 신우회를 통해 제자양육도 하고 공예매도 드리고 했지만,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선교적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송명진 선교사



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에 선교사로 허입 된 몽골 MK 송명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터서브의 선교사로서 섬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Q MK로서 부모님과 같은 단체에 선교사가 된 것은 인터서브코리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터서브에 허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송기태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뉴질랜드의 난민 무슬림 사역을 소개받아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였고, 친구를 사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돕고 싶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으로 다른 직업들보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선교

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며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왕따 된 사람들을 사귀고 싶습니다. 저 역시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그 상황이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 계획들을 이야기해주세요.

현지 교회 공동체 Friend of Friends Fellowship 과 난민 무슬림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교제를 할 때는 커피 서빙을 하며 섬길 예정입니다. 주중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Eastwest college에 다니며 선교 수업을 받고, 봉사도 할 예정입니다.

Q 명진 선생님께,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매일 일어나는 걱정과 다양한 유혹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용한 방에서 말씀 묵상을 하거나, 찬양곡을 들으며 산책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터서브의 선교사로 허입된 후에 제정과 파송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교적 삶입니다. 卍



보라, 땅끝에서 오도다! 캐나다 디아스포라 사역

김무용 선교사



북미에 위치한 캐나다는 대서양과 북극해, 태평양을 접하고 있습니다. 큰 영토에 비해 인구는 많지 않은 편이어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국가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공존하는 다민족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토론토는 북미 대도시들 가운데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새로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의 봄 이후 더욱 많은 무슬림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난민으로 들어오고 왔고, 2011년 캐나다 종교 인구로 힌두교를 제치고 기독교를 이어 두 번째 종교가 되었습니다. 광역 토론토만해도 300개에 이르는 모스크가 있고, 5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민, 유학 혹은 난민 등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살아가는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언제나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성경의 예언자적 비전은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이들이 열방에게 복이 되도록 그들에게 나아가는 삶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 땅 가운데로 흩으시며 또 온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곁으로 흩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복음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슬람, 힌두, 시크, 불교,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교회 곁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캐나다의 교회는 자신들 곁에 다가온 땅끝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세워서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가운데로 초대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와 현대 교회의 선교 담론인 '선교적 교회' 혹은 '선교적 삶'으로서의 선교 이해가 같이 만나게 되는 디아스포라 선교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디아스포라 사역 소개

하나. 선교적 삶을 돕는 교회 관계 사역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교회 관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예수를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6주 과정의 '우리의 친구 무슬림' 코스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주교재로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도록 돕는 'Life As Mission Basic'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친.무. 기도 모임과 LAMB/B.L.E.S.S. 커뮤니티를 세워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2021년 가을, 코로나 팬데믹 계속되는 가운데 '모자이크 도시 선교사 인증 과정'을 틴데일 대학교의 타문화 사역 센터와 협력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도시 선교사들이 SIM 캐나다, 인터서브 캐나다 등의 선교 사역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길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둘.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돕는 종족교회 협력 사역

아직 자기 종족 교회가 없는 민족들 가운데 믿는 이를 찾아내거나 전도하여 지도자로 세워 협력교회 안에 동지를 틀고 종족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은 종족교회 개척 사역을 소개하는 '모자이크 사역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 새로운 종족교회 개척 후보 그룹과 연결되어 이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돕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수종족 신자들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의 배경 가운데서 회심한 분들이기에 영적 가족이 필요 한데, 이러한 필요는 다른 누구보다도 소수종족 이민자로 살아온 한인 신자들이 몫소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요 가족이요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매년 여름 소수종족 목회자/지도자 수련회와 성탄 파티를 통해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에는 종족교회/그룹들이 연합하여 자기 종족 사람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누는 축제도 함께 갖습니다. 매월 한 번씩 종족교회 목회자/지도자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교제를 가지며, 매주 월요일에 갖는 중보 기도 모임에 격주로 종족교회 목회자/지도자들을 직접 초대하여 기도 제목을 듣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아직 자기 종족교회가 없는 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임을 '미션 토론토'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 "ecclesia everywhere everyday" 제자 삼는 제자 사역

이웃들과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실천적 성찰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삶을 드릴 일꾼들을 찾아 양육하고 파송하는 작은 교회 개척 배가 사역입니다. 전통적 교회 모델을 넘어 교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작



은 교회로 세워 도시 단위의 선교 운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섬겨가고 있습니다. 동네 아웃리치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란분과 함께 시작된 주일 페르시안 모임이 매주 이 같은 비전으로 교회의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 수많은 종족들을 섬길 수 있는 난민 사역

최근 수많은 난민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사역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난민 사역 단체와 동역하여 노스 욕의 트랜지셔널 홈인 아담 하우스 노쓰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아담 하우스 쉼터는 3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데 비해 트랜지셔널 홈은 1년 정도 머물 수 있기에 난민 신청자들이 토론토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보다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필요와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귀한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미션 토론토를 통해 아직 자기 종족 교회가 없는 티벳, 야지디, 몽골 등등의 소수 민족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2. 한인 디아스포라를 넘어 다민족 사역에 협력할 타민족 디아스포라 교회, 캐나다 교회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소서.
3. 다양한 디아스포라 사역(종족 교회 개척 사역, 국제 유학생 사역, 난민 사역)에 참여할 도시 선교사를 양성하는 캐나다 모자이크 칼리지 프로젝트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배출되는 훈련생들이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4. “ecclesia everywhere everyday” 사역을 통해 일상에서 제자 삼는 제자들이 계속 길러지게 하시고 각 민족과 도시 가운데 열방을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기를, 특히 토론토에서 먼저 시작되도록 인도주소서.
5. 복음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란에 있는 페르시안 형제, 자매들(존, F, N)을 보호하시고 이들이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6. 아담 하우스 노쓰의 난민 사역을 통해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요 종족교회 개척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7.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크기의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안식하는 삶과 사역들이 되게 다스리소서.
8. 2024년에 안식년을 가지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통해 해외 선교 현장에서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소서.



 미셔널 BOOK


예수로 성경읽기

(역사의 창과 신학의 눈으로 새롭게 보는 계시)

김동일 지음 / 한국NCD 출판, 2018년

저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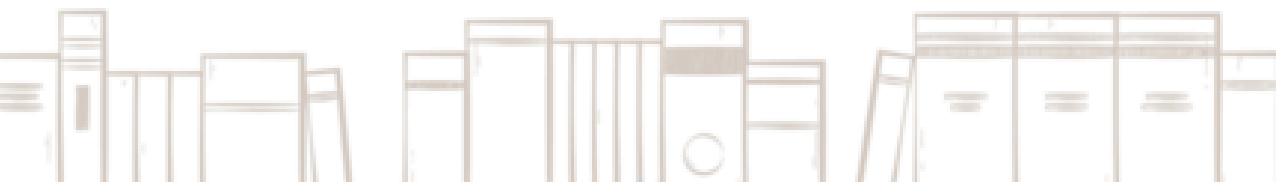
저자는 30여년간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1992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갈보리채플 바이블 칼리지에서 수학하고 목회사역을 하였다. 2017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 생명찬교회를 개척하였다. 저자는 진정한 교회와 자유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회가 사회에서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품고 함께 걸어가며 사회의 영적 안정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술 배경

이 책은 30년간 현장에서 사역한 목회자가 복음의 현장에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가르친 성경 공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어서 13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강의하며 다듬어진 책이다. “우리 삶의 경험을 다루지 않는 신학은 어떤 신학이라도 살아 있는 신학이 될 수 없다. 신학도 삶과 분리될 수 없다”(이정용)는 주장이 있듯이 이 책의 값어치는 현장에서 질문하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저술 토대는 저자가 대학시기부터 받은 역사 공부, 제자훈련, 귀납적 성경 공부, 대학원 신학 공부 및 목회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연결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통전적 성경읽기 관점으로 배우고 강의하면서 채워진 책이다.

올바른 성경읽기는 무엇인가?

저자는 성경의 올바른 읽기를 강조한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관점 중에 하나가 통전적 성경 읽기이다. 통전적 성경읽기 관점은 무엇인가? 통전적 성경 읽기는 먼저 성경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통일성을 읽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읽어냄으로써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통전적 성경 읽기의 목표는 바로 성경의 메타내러티브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 계시의 통일성과 점진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계시가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신구약 전체에서 촘촘하게 연결되었는지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의 메타내러티브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게시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다” 구속사적 성경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 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알기 위한 것이다”(p.30~32)


구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의 두 기둥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다른 모든 은혜 언약의 원형이며 또한 대표성을 가진다. ‘예수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온 메시아이다. 메시아로서 예수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린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자 성경 전체의 메타내러티브이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

이 책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다시 중요한 질문을 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속사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변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속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총체성’이라고 답변한다. “구원도 인간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우주적 사건이어야 한다.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나타난 모든 결핍과 죽음의 상태가 해소되고 살롬을 누리는 상태가 구원의 완성이다.”(p.516) “구원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구원의 정의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도전을 준다. 다원화된 시대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성’을 다시 각인하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 중심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 “선교는 영혼 구원과 함께 자유, 정의, 평화를 확대하는 사회적, 문화적 변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p.21) 는 저자의 주장은 선교적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 깊이 새겨야 할 핵심이다.

저자는 구원의 은혜성과 신앙의 실천적인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의 은혜성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은혜만을 강조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고한다. 여느 때처럼 이 책을 읽고 다시 지식의 은혜를 또다시 쌓을 것인가? 스스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하며 살 것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레디컬(근본적인, 철저한)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며 레디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기대한다. 

김명찬 선교사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자,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뿐 아니라 민간 지역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시민들까지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과 현지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기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집과 놀이터와 학교는 미사일로 무너졌고,
어제 함께 한 이웃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눈물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러시아의 침공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이
우크라이나에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온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을 덮으시길 기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소서.

기도문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INTERSERVE KOREA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43호 2022 Spring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중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2년 봄호 통권 143호

발행인 조섬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2. 3. 15.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